

#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언제까지 尹 출석만 기다릴 거냐”

### 광주·전남 시도민, 尹 버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신속한 판결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 현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옹호” 공분 목소리

광주·전남 시도민은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서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민의 여망과 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사실상 현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민들은 공분과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관련 서류조차도 송달 받지 않는 등 시간 끌기 식의 모습을 보이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현재의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무시하고 증거인멸, 수사 방해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오월 영령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수사에 협조하고, 현재를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광주도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일이다”며 “현재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고 허수아비 판결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더 이상 국민 피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기우식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사이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 타격은 커진다”며 “현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판결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는 “공수처와 국수부, 검찰은 서로 핑퐁게임만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체포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 역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 절차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길 바란다. 빠른 파면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끝내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지역민들은 공분했다.

최정희(여·29·광산구 신창동)씨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한 권한대행은 뜬금없이 ‘협치’를 꺼내들며 재판 지연 전략을 벌이는 꼴을 보니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더 화가 난다”며 “수사기관도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이 출석해주길 기다리지만 할 게 아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불법 계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57·서구 농성동)씨도 “정치인들의 과욕이 현 상황을 만들고 있다. 현재는 법 그대로 판단하되,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진정 국민의 바람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김준호(31·남구 진월동)씨 또한 “현재 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다. 더구나 윤 대통령 본인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도 아직까지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졸업식 추억 남기기 친구들과 ‘찰칵’ 26일 광주시 남구 동아여고 강당에서 열린 제40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현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현재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 국민은 아랑곳없이 내년 4월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은 끝까지 광장으로 나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민 뜻으로 끝내내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 지난해 자살·임금체불·학업중단 늘었다

### 시 ‘인권지표 분석·평가’ 결과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율 급락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늘었고 임금체불과 학교폭력·학업 중단자도 늘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인권지표 분석·평가’ 결과를 26일 내놨다.

광주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12월 민주인권현장 5대 영역 18개 분야에 대해 실천 여부를 분석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주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는 전년(2022년) 2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증가했다.

자살률 자체는 17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에 속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물리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분석했다.

체불임금 해소율은 전년 98.77%에서 2023년 90.41%로 하락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수도 4350개에서 3630개로 감소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과 동일한 18명으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 학생수 대비 학업 중단자 비율은 전년 0.88%에서 지난해 1.21%로 늘었다. 검정고시, 대안교육기관 선택 등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또한 증가세다. 학생 1000명당 피해 건수는 전년 5.44건에서 5.47건으로 늘었다. 학생 1000명당 상담 건수도 492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은 10.83%→2.72%로 급락했다. 전용택시를 58대 늘리는 등 이동수단 자체는 늘었으나 지난해 중증보행장애 인정 기준이 바뀌면서 장애인 수가 1만 9383명에서 2만 7516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건수 대비 구제율은 전년 88.56%에서 지난해 84.51%로 4.05%p 감소했다. 총 상담 2266건 대비 1915건 구제됐는데, 구제건수(499건 증가)·상담 건수(667건 증가) 모두 전년 대비 늘었지만 구제율 자체는 줄었다.

개신교 지표도 있었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 대비 취업률은 52.40%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실업률은 2.00%로 전년 대비 1.2%p 하락했다.

노인차매 조기집진 수검률은 전년 대비 6.08% 증가한 52.80%였으며, 장애여성 출산 후 돌봄지원비율(8.00%→12.5%),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돌봄률(55.56%→66.67%), 공공도서관 접근도와 이용률(12.42%→16.06%) 등 지표가 상승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尹 파면될 때까지”... 광주·전남 집회 이어간다

### 내일 민주광장 ‘광주시민총결기’

광주·전남 시민사회 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간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28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제8차 광주시민총결기’를 진행한다.

광주비상행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을 버림으로 내모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28일에는 목포와 보성, 강진, 순천, 구례, 여수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총결행동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지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행 ‘촛불버스’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광주비상행동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서울과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비상행동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밤 10시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은 감옥으로 보내고, 7공화국을 맞이하자’는 주제로 2024 ‘송구영신’(送舊迎新) 집회도 개최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육군 31사단 장병 등 20여명 집단 식중독 증세 당국 조사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다.

26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식 메뉴 중 고르곤졸라 피자를 먹은 31사단 장병과 중사 등 20명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북구는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유증상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북구는 식중독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환경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경우 주로 감염되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월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